

조국에서 보낸 즐거움과 감동의 7일간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심양시지부 조국방문단의 체류일정을 따라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심양시지부 조국방문단이 공화국을 찾았다.

조국에서 보낸 7일간, 사람의 한생애 한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도 짧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나날들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슴속깊이 자리잡은 잊지 못할 나날들이었다.

기자는 그들의 조국방문일정을 함께 하는 과정에 참여한은 느낌의 일부를 적어보려 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심양시지부장 권현선생(58살)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조국방문단의 일행은 모두 7명이었다.

림순자선생(80살), 김영자선생(73살), 리보비선생(79살), 강태숙선생(74살), 김정애선생(60살), 김정희선생(56살).

《남자로 태어나서 우쭐했는데...》

5월 29일 오전 10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심양시지부 조국방문단일행은 태운 배스는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앞에 도착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를 찾아주신 동료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름한 얼굴에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정담아 인사하는 박옥희의사의 모습은 이곳을 찾은 방문단성원들의 마음을 대변에 즐겁게 하여 주었다.

한 직원이 연구소문앞에 놓여있는 자그마한 합동을 가리키며 발을 가져다대라고 친절히 가르쳤다. 신발우

대부분이 고령의 몸들이었지만 나이에 비해 펴 건강해보였고 조국을 찾은 감격과 기쁨으로 언제나 즐거워하였다.

김정애선생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여러차례 조국에 와보았던 동료들이었다.

이번 조국방문나날 이들은 만경대를 방문하고 옥류아동병원,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평양민속공원, 개성시를 비롯하여 많은 곳을 참관하였다.

에 비닐덧옷을 씌우는 장치였다. 한사람 한사람씩 《발포장기》를 거치고 위생복을 입고 공기차단막을 형성한 출입문을 지나서야 건물안에 들어설수 있었다.

대상이 병원인지라 첫시작부터 간간히 위생을 지키는게 알렸다.

《우리 유선중앙연구소는 유선중과 유선암을 비롯한 여성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현대적인 종합적인 의료봉사 및 과학연구기지입니다. 여기에는 아직 몇개 나라밖에 없는 다목적전선과 최신형의 CT, 초음파진단, 심전도

설비들이 있으며 먼거리로



만경대고향집에서



옥류아동병원에서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에서

지금 내앞에는 본사편집국 앞으로 보내온 어느 한 주민의 편지가 놓여있다.

《저는 평범한 로동자입니다. 며칠전 퇴근길에 올랐던 저는 뜻밖의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가던 동무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것입니다. 무작정 가까운 병원인 평양시제1인민병원으로 데리고갔으나 저는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걱정이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온 의료진단이 소생전투에 달려볼것이지 아니겠습니가. 환자의 이름같은 것은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습니가.

한 로동자의 꺼져가는 생명을 위해 최진식의료설비들이 동원되고 의사, 간호원들이 지극한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을 바라보는 저의 가슴

은 인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고마움으로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라면 과연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가. ...》

편지의 내용은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에 하에서는 너무나 레사롭고 평범한 일

이었다.

나의 눈앞에는 소생의 기쁨에 넘친 그 평범한 로동자의 모습과 함께 얼마전 어느 한 출판물이 전한 미국의 한 로동자의 비참한 운명이 서로 엇갈리며 떠올랐다.

...뉴욕에서 사는 한 로동자가 열이 나는 몸으로 한 병원으로 찾아가었다. 그는 응급실에 도착하여 5시간을 기다

료봉사체계가 실현되어 전국의 여성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과 유선질환들의 조기검진 및 예방사업이 진행되고있습니다.》

박옥희의사의 해설을 들으며 방문단일행은 1층부터 차례차례 연구소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입에서는 연해연방 감탄이 끊길줄 몰랐다.

3층의 입원실에 이른 방문단일행은 액정TV며 팬딩기를 비롯하여 흠잡을데 없이 꾸려진 하나하나의 방들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림순자선생이 한 여성환자의 침대에 다가서며 이렇게 물었다.

《진짜 돈 한푼 안내고 여기서 치료를 받고있어요?》

그러자 그 여성은 짙 짙 놀라며 《돈이 다 뺏니까? 공화국에서 돈을 받지 않고 치료해주는거야 누구나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라고 말하느것이였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도 아는데, 우리가 진짜로 알고 싶은건 정말로 단 한푼도 받지 않는지, 조금은 내지 않는가 하는겁니다.》

이번에는 권현단장선생이 물었다.

《정말 한푼도 안받니다. 사실 난 유선중이 있다는것조차 몰랐답니다.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에서 내가 사는 곳에 나와서 진찰해보더니 유선중을 치료해야 한다고 하여 이렇게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링게르주사를 맞다가도 돈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바늘을 뽑아버려요. 죽는말은 상판이지요. 돈지불확인서를 가져오는 다음에야 다시 찾아주지요.》

조국인민들은 정말 행복속에 살고있어요.》

입원실을 나서며 권현단장선생이 하는 말이였다.

알고보니 그에게는 사연이 있었다. 단장선생의 부인이 유선양성종양으로 진단받고 많은 돈을 내고 몇년간에 수술을 받았던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병이 도져 걱정하고있었다.

순간 절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자가 이례서는 안되지 하면서도 두볼로는 하염없이 뜨거운것이 흘러내림을 견잡을수 없었다. 머리를 돌리고 그 모습을 감추느라 방문단일행을 뚫릴뿐까지 하였다.

《의사선생님,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 우리도 한번

이런 훌륭한 병원에서 유선중검사를 받아보고싶은데요?》

김정희선생이 일행의 심정을 대변하여 얘기했다.

《물론입니다. 모두들 한번 받아보십시오. 유선중은 나이가 많다고 하여 안심해도 된다는 담보가 없는 병이랍니다.》

박옥희선생의 안내를 받으며 방문단일행은 검진조사표를 받아들고 검사를 받기 시작했다.

《남자도 유선중에 걸리는데 단장선생님은 검사를 안 받으시렵니까?》

《아니, 난 됐어요. 그동안 글이나 좀 쓰겠어요.》

여성이 대부분인지라 단장

《안전모를 써야 해요?》

5월 30일 오후 2시, 드디어 이번 조국방문의 길에서 가장 기다려지던 일정이 다가왔다.

이날의 참관지는 문수물놀이장이였던것이다.

때는 초여름이라 하지만 이날 평양의 기온은 33℃ 고 온을 기록했다.

물놀이를 하기에는 제격의 날씨이지만 방문단일행의 평균연령이 70대라는 사실은 기자로 하여금 선생들이 폐물에 들어설수 있을가 하는 위구심이 들게 하였다.

리옥순안내원의 해설을 들으며 방문단일행은 문수물놀이장에 들어섰다.

실내물놀이장의 홀에 모셔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천연색석교립상이 한눈에 안겨왔다. 안내원으로부터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에 나오시여 우리 인민들에게 종합적인 물놀이장을 꾸려주시려고 마음쓰신 장군님께서 훌륭히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는가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방문단일행은 깊은 감동을 받아안았다.

실내물놀이장을 돌아보며 이어 야외물놀이장에 이르자 모두들 《아!-》하고 탄성을 터쳤다.

각종 물미끄럼대들과 수조들이 눈썰리가 모자라게 펼쳐진 광경이 정말 볼만 하였던것이다.

야외물놀이장은 6월 6일부터 운영한다는 말을 들으며 누구나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조국방문마감일이 6월 3일이니 야외물놀이장에서의 물놀이를 즐길수 없는 아쉬움이였다.

《선생님들, 실내물놀이장

선생은 줄곧 방문단의 즐거운 화제로 되었다.

모두들 검사를 받고 나오니 그동안 권현단장선생은 감상록에 이런 글을 남겼다.

《의료보험에 틀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것이 한장의 휴지이로다. 남자로 태어나서 우쭐했는데 그것도 제도에 따른것이다. 2014. 5. 29 권현》

《아하하하- 우리 단장선생은 생기기도 잘 생기시고 글도 참 잘 써요.》

청초는 녀인들의 웃음소리에 단장선생도 소리없이 웃었다.

비록 길지 않은 글이었건만 쿵- 하고 가슴을 울려주는 말마디들이였다.

에서 물놀이를 하시겠습니까?》

리옥순안내원의 물음에 약속이나 한듯이 《예-》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어린애같은 행동들이 우스운듯 또 《아하하하-》.

《저기 수영복을 나누는 곳에서 수영복과 모자를 타가지고 탈의실에서 입고 나오시면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꼭 모자를 써야 합니다.》

안내원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나더니 문득 권현단장선생이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무슨 모자요? 안전모를 써야 해요?》

또다시 터지는 웃음. 그래도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르쇠를 하는 단장선생의 재치있는 유모아에 웃음은 그칠줄 몰랐다.

조국에 와서 즐거움과 기쁨을 한껏 누리며 젊어지는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다.

《난 심양에서부터 소문난 문수물놀이장에 꼭 와보려고 수영복을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김영자선생이 수영복을 보여주며 하는 말이였다. 림순자선생도 심양에서 가지고온

문명의 길로 달린다

5월 30일 오후 5시, 일행은 미림승마구락부를 찾았다.

승마는 다들 처음인이라 신통 용기를 내지 못하였다. 매 사람에게 조교사가 따라다니며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김정희선생과 김정애선생, 권현단장선생이 말을 타겠다고 나섰다.

다른 나이많은 선생들은 2층에 있는 휴식장에서 이들의 말라는 모습을 보면서 휴

수영복을 내보이며 《61살에 송도원에 가서 해수욕을 해본게 마지막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꽤 할수 있을가 싶었는데 오늘 물놀이장을 돌아보니 당장 물속에 들어가고 싶어요.》하고 말하였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심양에는 바다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수영장과 물놀이장이 여러곳 있는데 이곳 문수물놀이장처럼 크고 멋있고 물맑은 물놀이장은 없다고 한다.

일행중 《젊은층》에 속하는 김정희선생과 김정애선생(그들은 자매지간이다.)은 8자구명대에 앉아 물미끄럼대를 타고있었다.

한편에서는 리보비, 강태숙, 림순자, 김영자선생들이 수조에 들어가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라고 노패를 부르며 어쩔줄까지 추고있었다.

권현단장선생도 몇년만에 수영을 한다지만 젊은이들 못지 않게 수영을 잘하였다.

《참 수영을 잘하십니다. 문수물놀이장에서 수영을 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영주로서 수영을 하던 나이가 지긋해보이는 한 남성이 단장선생에게로 다가와 물었다.

《정말 좋아요. 조국에서 수영을 하니 더욱 좋은것 같어요. 매 수조의 모서리들이 원형으로 되어있으니 넘어져도 다칠 염려도 없고 하나하나 인민들의 편의를 고려한게 알려요.》

일행은 각기 이 수조, 저 수조를 다니며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수조에 함께 들어갔다. 젊은 남녀들이 처칠씩치는 파도와 함께 앞으로 나갔다 뒤로 밀리며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유쾌히 웃었다.

맑은 물속에서 시름없이 웃는 그들의 모습은 로인들이 아니라 마치 어린애와 다름없었다.

문수물놀이장에 넘치는 맑은 물이며, 내 조국의 사랑처럼 정말 맑고 따뜻하구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1만US\$의 해산비가 있어야 하며 해산술을 받는 경우 2만US\$를 내야 한다. 웬간한 수술비는 보통 2만~3만US\$에 달하며 위암수술비는 5만 5 000US\$, 심장수술비는 10만US\$에 달한다. 구급환자가 응급실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10만~20만

US\$를 물어야 한다.

그야말로 돈이 없으면 병원문턱을 넘어서는 용기조차 남지 않고 일단 병에 걸리면 죽어야 하는 세상이다.

하지만 공화국인민들은 누구나 차별없이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인민적인 보건제도의 혜택속에서 값없는 삶을 꽃피워

가고있다.

공기속에서 살면서도 사회주의를 다는 모르듯이 그 소환을 보건제도로 얼마나 우월한지를 과연 누구나 다 알고 살고있는가. 한 평범한 로동자의 생명을 위해 비행기가 날고 그들의 소생을 위해 천만금도 아낌없이 쏟아붓는 나라가 공화국이다.

생각이 깊어진다. 공화국의 사회주의는 인민의 락원, 자본주의는 근로대중의 무덤이라는 철리가 가슴속에 더욱더 깊이 새겨진다.

편지의 마가에 씌여진 다 음의 글줄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한듯싶었다.

《『진정 세상에 나라는 많고많은데 인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위해주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처럼 좋은 세상은 없습니다.』

본사기자

경제학생소년궁전과 평양민속공원, 옥류아동병원,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비롯하여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평양민속공원을 돌아보고 나서 삼천리강산을 한눈에 보았다는 권현단장선생의 이야기며 전쟁참가자들인 리보비선생과 강태숙선생, 림순자선생은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참관하고나서 먼저 간 남편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지었다.

자기들이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본 다음날에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궁전을 찾아주시었다는 보도를 듣고는 너무 아쉬워 어쩔바를 몰라했다.

아니것 하나 감동이 없이는 볼수 없는 조국의 창조물들이였다.

6월 3일 그들은 조국방문일정을 마치고 떠났다. 사랑하는 조국의 모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해외에서도 애국의 마음을 다해갈 결의를 다지며 심양으로 떠났다.

마지막으로 권현단장선생이 평양의 거리에 활짝 피어난 장미꽃을 보며 쓴 자작시로 이 글을 마칠가 한다.

길가의 장미여 너 유난히 아름답구나
내 평양의 노래를 할테니 너는 춤춰라
조국은 우리를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는데
우리의 애국이 부족한것 같아 송구스럽구나
본사기자 김 춘 경



만문점 통일진필비앞에서



미림승마구락부에서



문수물놀이장에서

강계시에서 물놀이장 새로 건설

강계시 북천기슭에 물놀이장이 새로 건설되어 운영을 시작하였다.

물놀이장에는 어린이수조, 어른수조, 조약수조, 미끄럼수조, 덕수터, 3단으로 된 조약대와 열림식 물미끄럼대, 무지개모양의 물미끄럼대가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옷보관실, 샤워실, 치료실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이 잘 꾸려져 물놀이장을 찾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해줄수 있게 되었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강계시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현대적인 물놀이장건설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경제전동의 복소리가 힘있게 울려 퍼지는 속에 돌격대

본사기자